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Linux 현황

연례 검토

목차

핵심 요약	2
1장: 클라우드 환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Linux 배포판	3
2장: IT 환경에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성을 모색하는 조직들	9
3장: 클라우드 배포에 도움이 되는 Linux의 중요 이점	13
결론	15
2021 Linux 시장 조사: 방법론과 기업 통계	16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Linux 현황

핵심 요약

점점 더 많은 워크로드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Red Hat을 대신하여 [Management Insight Technologies](#)가 실시한 내부 시장 설문조사인 [2021 Linux® 시장 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이듬해에 워크로드를 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이 결합된 것으로서, 두 환경 사이에서 워크로드와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식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조직은 유연하게 진화하고 적응하면서, 인프라 요구 사항이 아닌 조직의 목표에 따른 합리적인 IT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성공하려면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며, Linux가 그 출발점입니다. 운영 환경이 유연하고, 일관되고, 복원력이 있고, 보안 중심적인 경우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환경은 이러한 일관성을 상속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할 때 이러한 일관성은 조직이 기술, 표준,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모범 사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Linux 시장 조사](#) 응답자들은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 전반에서 워크로드를 더 쉽게 이전하기 위해 조직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Linux OS 기반 표준화"를 최우선 조치로 꼽았습니다.

표준화는 모든 환경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IT 환경 구축에 대한 공통된 접근 방식과 공통 언어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021 Linux 시장 조사](#)에 따르면 워크로드가 계속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동함에 따라 조직은 Linux를 플랫폼으로 선택하여 일관성의 이점을 누리며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및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거쳐 신뢰성을 획득한 엔터프라이즈급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효율성과 보안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으로 구현하고,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DIY(Do-It-Yourself)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는 얻을 수 없는 지원, 스마트 관리, 표준화된 보안과 같은 이점을 자체 플랫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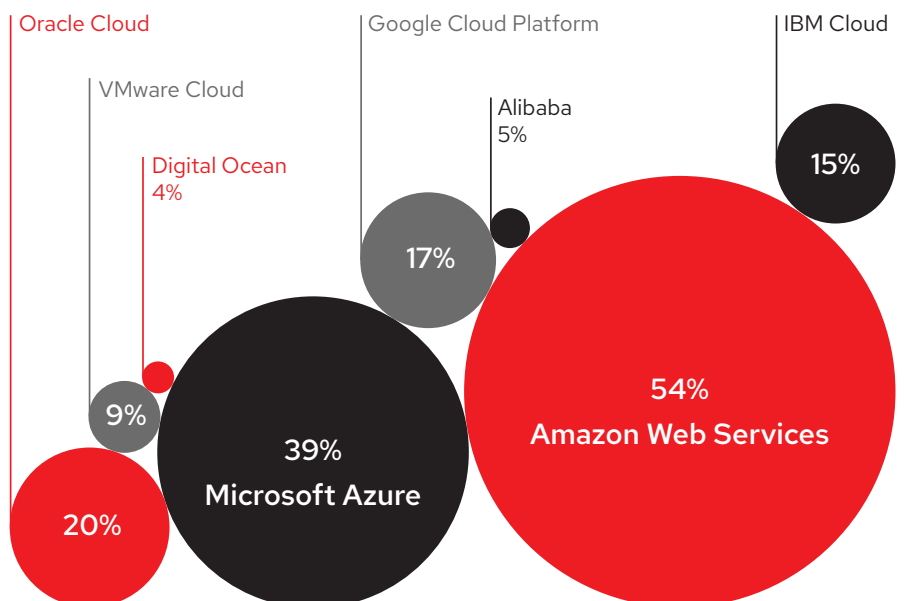
클라우드 환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Linux 배포판



'2021 Linux 시장 조사: 방법론 및 기업 통계'에 따르면 Linux 배포판이 지속적으로 모든 유형의 환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Linux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조직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자체 워크로드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환경 배포판 사용 실태에 대해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클라우드 공급업체는 Amazon Web Services(AWS)(54%의 응답자가 사용 중), Microsoft Azure, Oracle Cloud이며, 조직당 평균 1.63개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Linux 워크로드에 사용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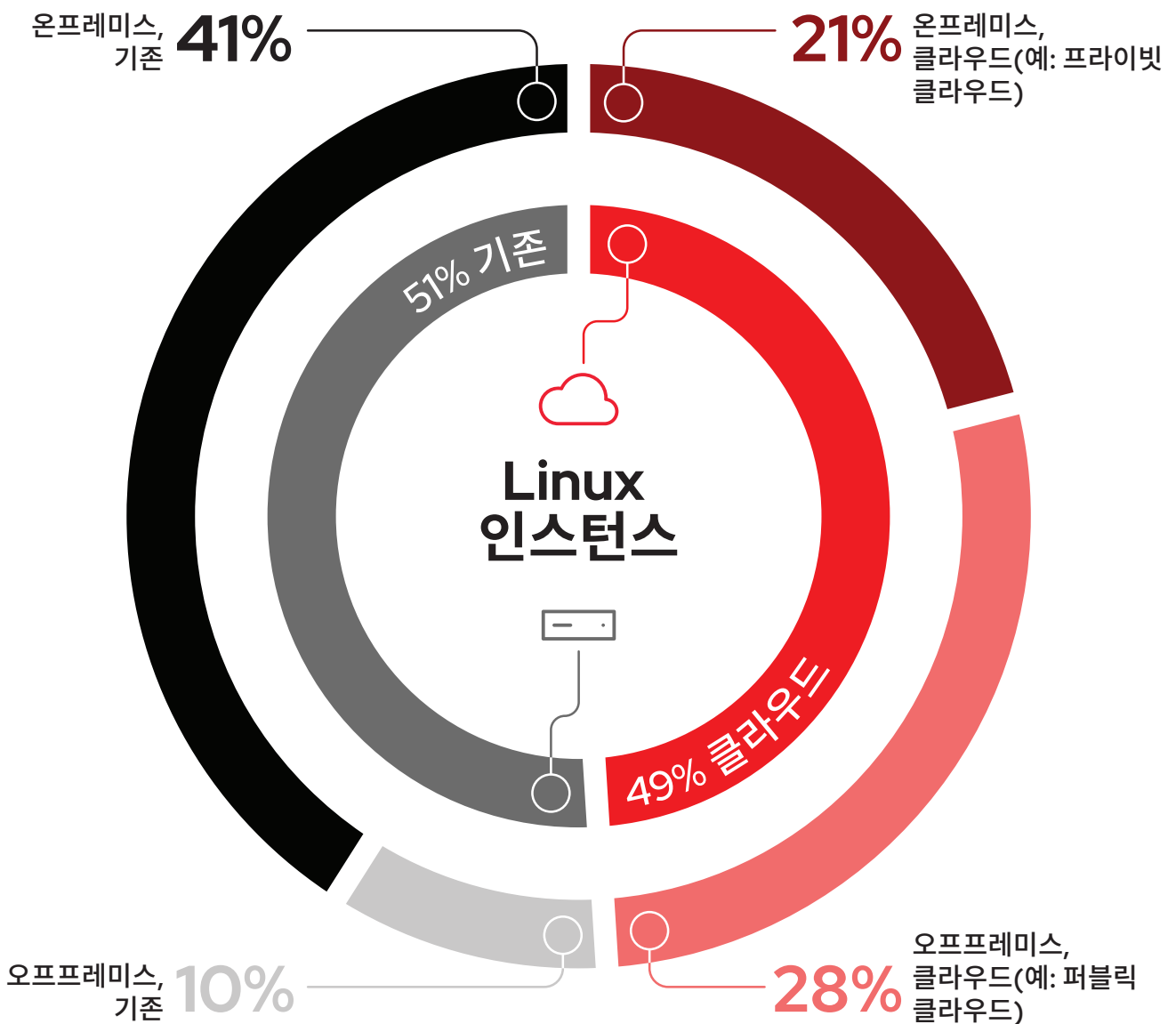
Red Hat Enterprise Linux는 AWS, Microsoft Azure를 비롯한 인증된 클라우드 공급업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바로 제공됩니다.

[AWS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Azure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Linux 시스템은 온프레미스와 호스팅되는 물리 시스템 전반에 배포되며(51%: 이 둘을 합한 비율), 21%는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배포됩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경우 Linux 워크로드 중 28%만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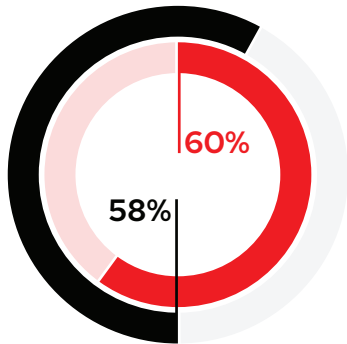
인프라 환경별 Linux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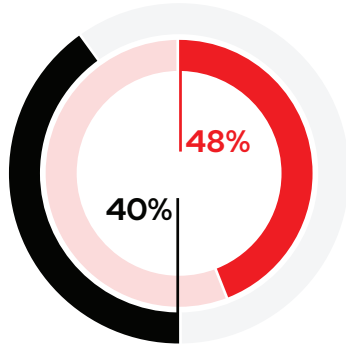
단연코 대다수의 응답자(58%)가 물리 및 클라우드 환경 간에 활발한 통합과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1/4은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사용 중이며, 여러 환경 간에 일정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의 응답자만 클라우드 환경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 간 상호운용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현행 클라우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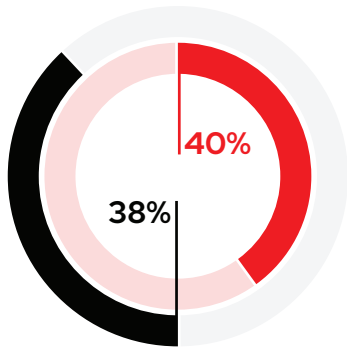
- **58%**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을 결합해, 두 환경 간 워크로드와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식 사용 중
- **13%** 여러 클라우드 환경 간 워크로드와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식 사용 중
- **12%** 개별 비즈니스 목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개의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 중
- **9%**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을 결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상호운용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
- **4%** 여러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호운용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
- **4%** 주로 온프레미스 환경을 사용하고 있으며 클라우드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
- **0%** 전략 없음.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이 없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배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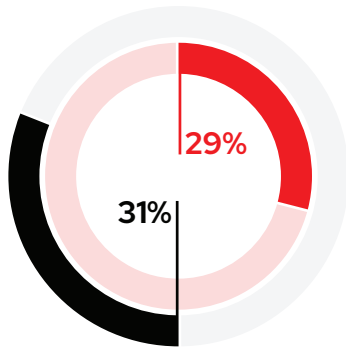
데이터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워크로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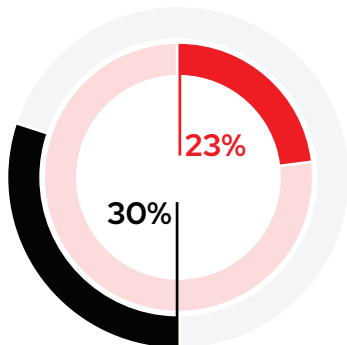
퍼블릭 클라우드에 완전히 새로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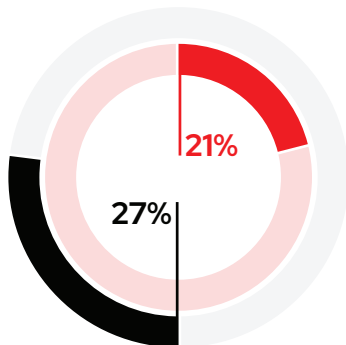
하이브리드 배포 전반의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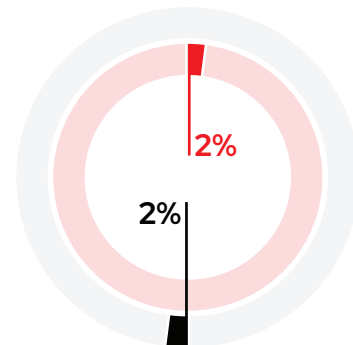
퍼블릭 클라우드 간 이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시작한 워크로드를 데이터센터로 이전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이터센터로 송환



없음

조직은 워크로드를 자주 이전하는데, 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전하고(58%) 클라우드 간에도 이전합니다(31%). 여러 환경 간에 워크로드를 이전하거나 새로운 워크로드를 배포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2%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상호운용성과 이식성은 클라우드 환경에 고려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2년 간 조직의 마이그레이션과 신규 배포 패턴은 비슷하게 유지되겠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째, 신규 클라우드 배포 증가(40%에서 48%), 둘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를 데이터센터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비율 감소(30%에서 23%), 셋째,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로 되돌리는 '송환(repatriation)' 비율 감소(27%에서 21%)가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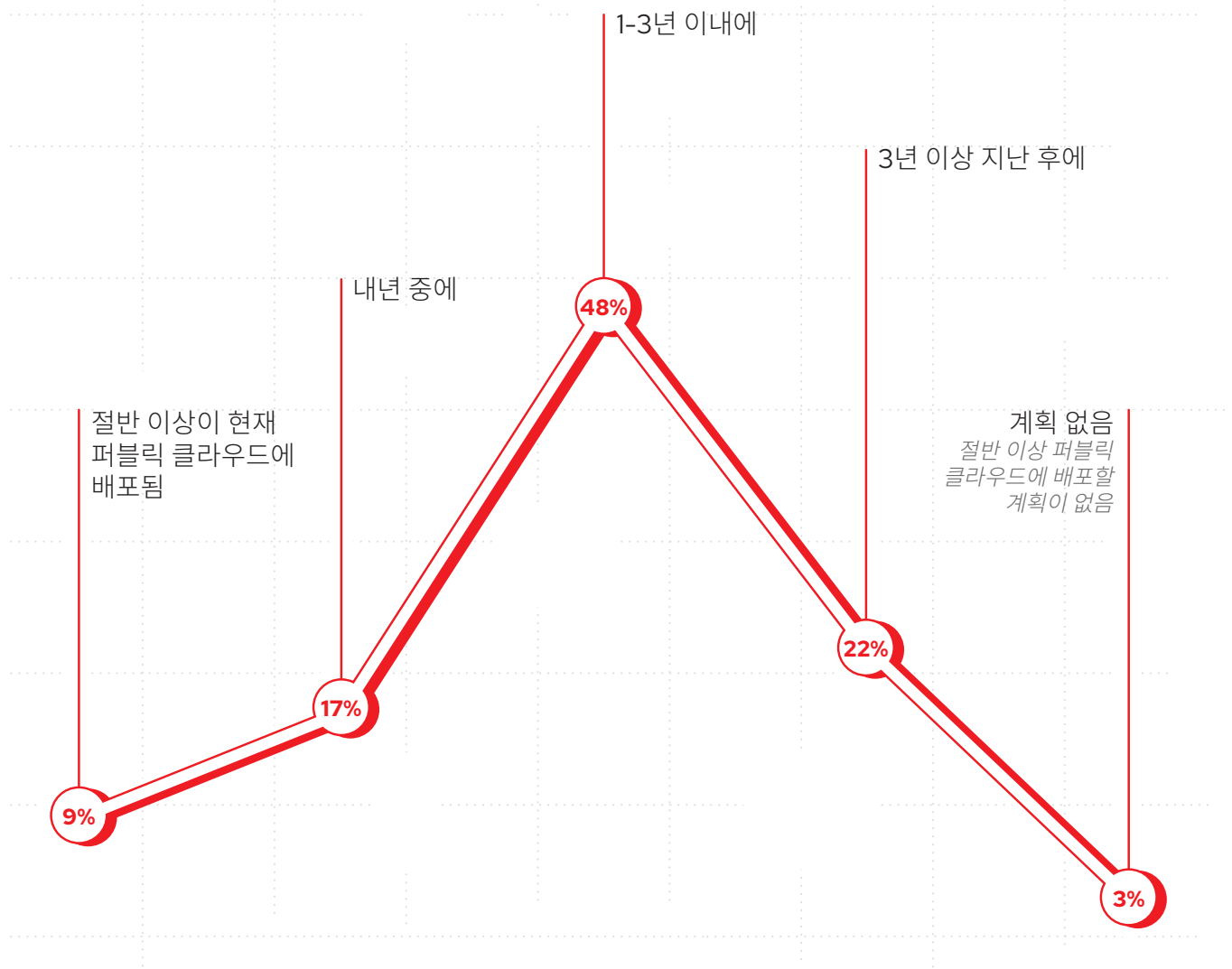


2년 내 예상되는 조치



지난 12개월 동안 취한 조치

조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적극 이전하고 있습니다. 자체 워크로드의 절반 이상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한 조직은 9%에 불과합니다. 응답자의 74%는 3년 내에 자체 Linux 워크로드 중 절반 이상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극히 적은 3%에 불과한 응답자는 자체 워크로드 중 최소 절반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배포할 계획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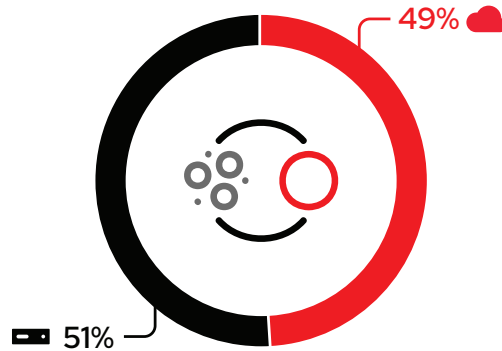


Linux 워크로드의 50%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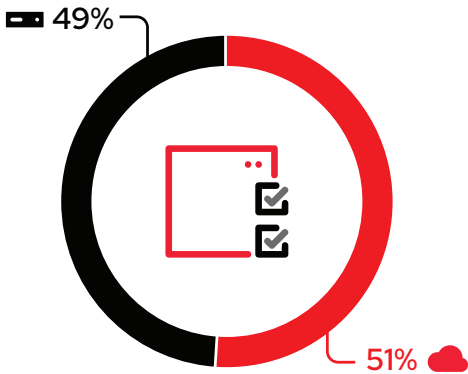
워크로드가 여러 환경 사이에서 빈번히 이동하고 새로운 워크로드가 배포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환경 간의 전반적인 워크로드 할당은 워크로드 라이프사이클 단계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됩니다(균등 배분에 가까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유일한 곳은 프로덕션 환경으로서, 6%의 워크로드가 네트워크 엣지에 있습니다.

프로덕션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Linux 워크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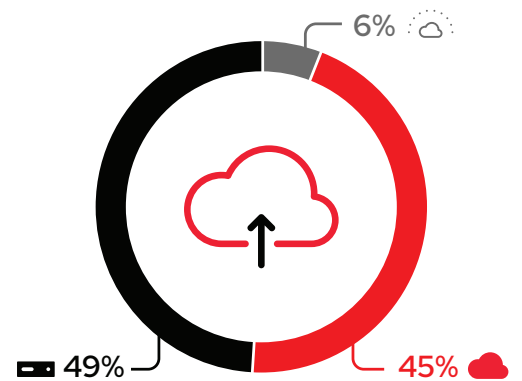
■ 엣지 ■ 퍼블릭 클라우드 ■ 온프레미스



Linux 워크로드 개발



Linux 워크로드 테스트



프로덕션 Linux 워크로드 배포

Red Hat의 관점

조직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로 이동함에 따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설계된 제품을 구축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하고 온프레미스 솔루션의 한계 내에서 작업하던 관행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활용하는 개발 철학으로 계속 대체될 것입니다. 조직이 계속해서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함에 따라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우선" 철학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현대화에 대한 주된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2장:

IT 환경에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성을 모색하는 조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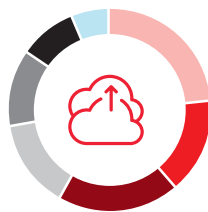
일관성은 팀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에서 복잡성을 줄이고 가용성을 높이는 신뢰할 수 있는 기반에서 비롯됩니다. 일관성은 수천 대 또는 수십만 대의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업에 필수적입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를 통해 조직은 수동 또는 반수동 관리에 따른 경비와 위험 없이 시스템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를 통해 기업은 자유롭게 자체 주요 과제에 집중하면서도 어떤 클라우드에서든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book 운영 체제가 중요한 이유를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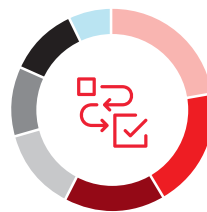
점점 더 많은 조직이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이동하면서 배포 관리 및 마이그레이션에 따른 어려움, 비용,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툴을 찾고 있습니다. 일관된 환경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직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동하면서 소프트웨어 벤더와의 소통 및 소프트웨어 및 툴 조달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보안, 관리, 컨테이너, 지원과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해 Linux 벤더, 클라우드 공급업체, 타사 또는 자체 개발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거의 균등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응답자들은 각 영역에 대해 평균 1.5개 이상의 서비스 공급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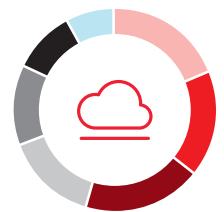
조직의 Linux 관리를 위한 툴과 서비스 조달 방식



클라우드에서 Linux를 배포하기 위한 툴



성능 및 가용성 유지



인프라 관리

- LinuxOS 벤더 및 클라우드 공급업체
- LinuxOS 벤더만 사용
- 클라우드 공급업체만 사용
- 자체 개발에 국한
- LinuxOS 벤더와 자체 개발
- 클라우드 공급업체와 자체 개발
- LinuxOS 벤더, 자체 개발 및 클라우드 공급업체
- 기타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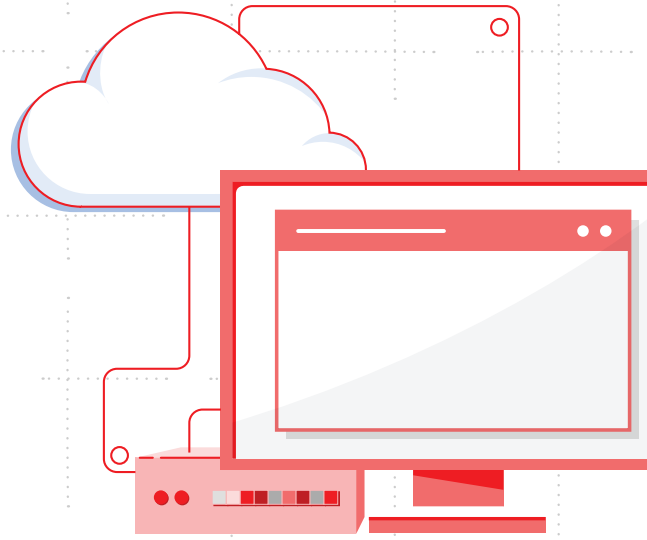
기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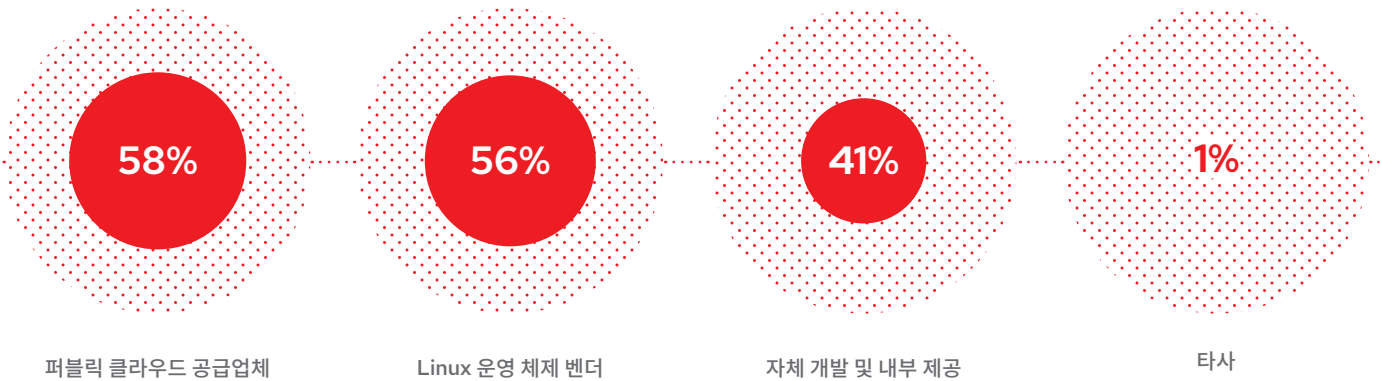
컨테이너 관리



인프라 보안 유지 관리



조직이 핵심 서비스 또는 툴을 획득하는 곳(단순화한 통계)



워크로드가 여러 환경 간에 끊임없이 이동하므로 애플리케이션 관리에는 이식성에 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정의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흥미롭게도 응답자들은 마이그레이션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클라우드 간에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대체로 접근 방식이 약간씩 달랐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선호되는 전략은 각 환경에서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른 일관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Linux 배포에 대한 지원 구매 시 선호되는 방법

62% 동일 Linux를 계속 사용하고 클라우드 공급업체에 비용 지불

36% 동일 Linux를 계속 사용하고 Linux 벤더에 지원 비용 지불

2% 해당 없음 / 모름



운영 체제 기반 표준화는 응답자의 40%가 가장 선호하는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방식입니다. 클라우드로 더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도록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취한 조치는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배포를 위해 Linux를 기반으로 표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적게 취한 조치는 지원되는 자체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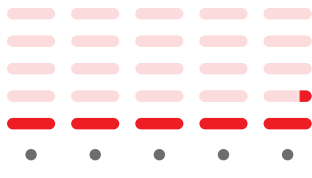
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로 더 손쉽게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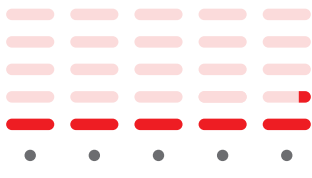
Linux OS 기반 표준화
(즉 Red Hat Enterprise Linux, Ubun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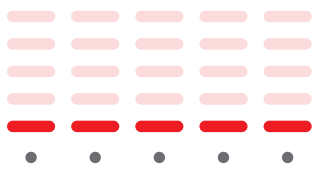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온프레미스 제공 사항(즉 Anthos, AWS Outposts, Azure Stack)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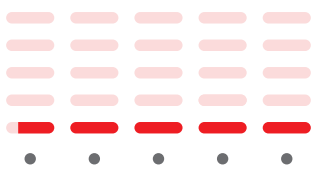
클라우드에 구매하지 않는 프로비저닝 툴(즉 Terraforms, vRA)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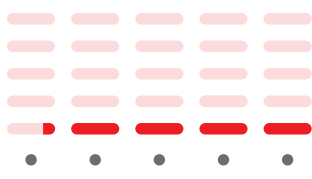
여러 클라우드 전반에서 작동하는 벤더 지원 쿠버네티스 플랫폼(즉 OpenShift®)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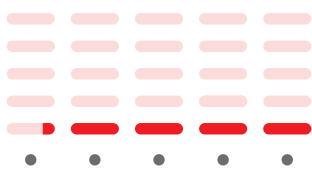
라이프사이클 자동화 소프트웨어(즉 Puppet Enterprise, Red Hat Ansible®)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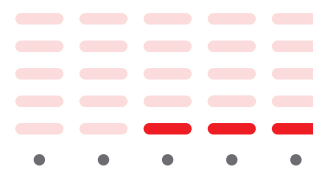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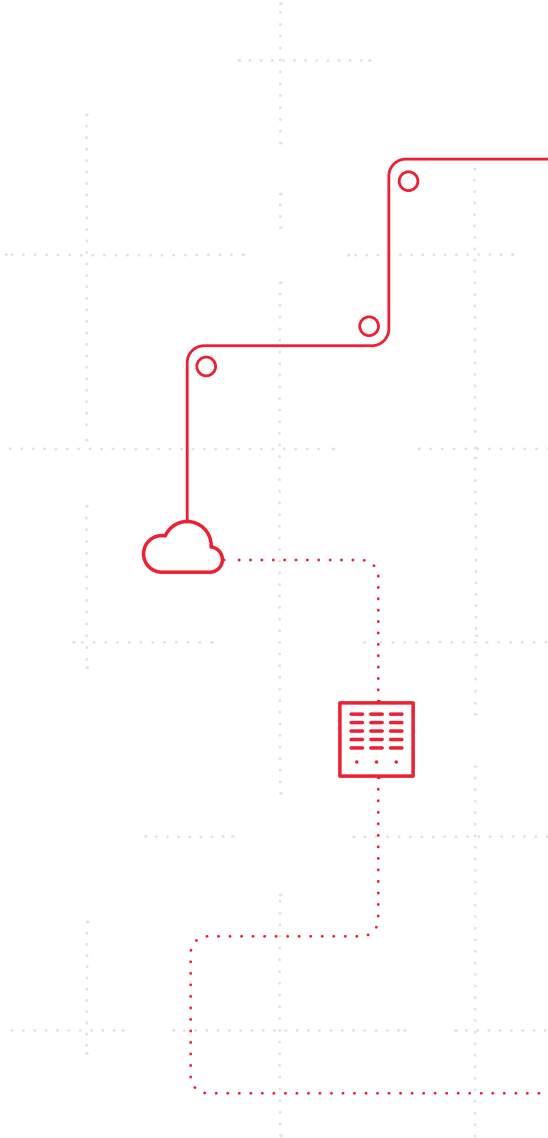
클라우드 공급업체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즉 EKS, GKE) 사용



가능한 경우 클라우드별 서비스 사용은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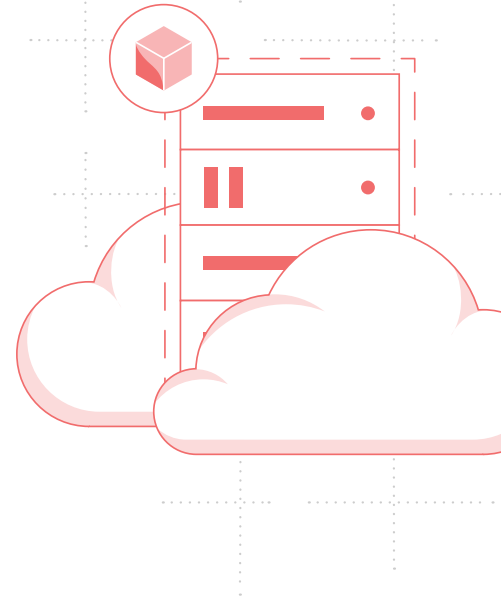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에서 VMware 사용(즉 VMware on AWS, Azure, GCP, IBM Cloud)



자체 관리형 및 셀프 지원 쿠버네티스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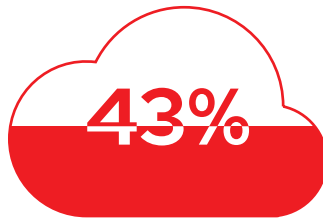
하지만 클라우드 간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운영 체제 기반 표준화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2%로 확실히 다수였습니다. 다른 43%의 응답자는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서 일관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온프레미스 마이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41%)의 응답자가 워크로드 배포를 위해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17%의 응답자만이 이식성 유지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공급업체별 툴을 사용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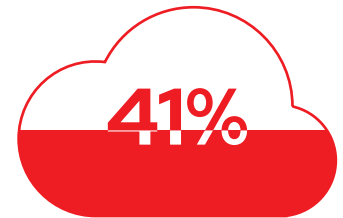
더 원활한 클라우드 간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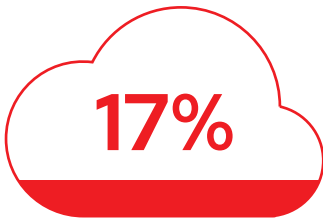
여러 클라우드 전반에서 일관된 운영 체제 유지 관리



여러 클라우드 전반에서 일관된 컨테이너 이미지 유지 관리



하나의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표준화



가능한 경우 클라우드별 서비스 사용은 지양



인프라 공급업체의 쿠버네티스(예: EKS) 사용은 지양



없음, 이식성 실현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Red Hat의 관점

일관성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엣지 배포, 사물인터넷(IoT),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분산 컴퓨팅 전략으로 현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일관성과 표준화가 핵심 사안이 되었습니다. 조직은 표준 운영 환경(SOE) 접근 방식이 제공하는 일관성을 이용해 네트워크 관리 태스크를 자동화하여 자체 인력 및 프로세스의 생산성, 효율성,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직을 위한 조정 가능 전략을 정의하는 방법 알아보기](#)

3장:

클라우드 배포에 도움이 되는 중요 이점을 제공하는 Linu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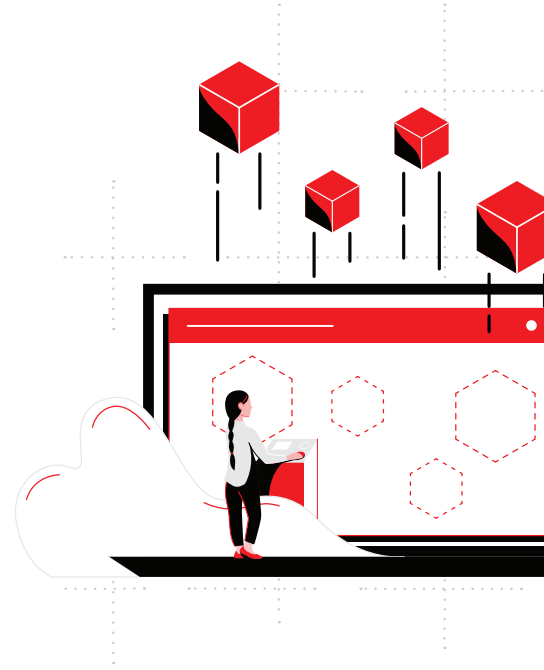
Linux 배포에 따른 보안, 비용 또는 이식성 최적화 등 장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체로 온프레미스의 Microsoft Windows에서 클라우드 환경의 Linux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클라우드 환경에 Linux를 배포하는 경우 응답자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비용, 일관된 보안 기능, 클라우드 전용 기능이었습니다.

여러 클라우드에 배포할 때 Linux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용 최적화	25%
일관된 보안 기능의 가용성	23%
클라우드 전용 기능	20%
성능, 가용성 및 보안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해결할 수 있는 툴의 가용성	18%
모든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전반에서 일관된 Linux 이미지 가용성	17%
모든 Linux 환경 전반에서 일관된 Identity 관리	16%
클라우드 전반에서 일관된 고가용성 프레임워크	16%
동일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툴링의 가용성	15%
현재 직원이 보유한 기술의 가용성	14%
개발자의 선호도	12%
Linux 벤더의 지원, 패치 적용 및 업데이트	12%
일관된 운영 체제 가격 책정	12%

클라우드 환경에서 Linux 배포 작업과 관련해 조직이 기대하는 주요 장점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의 장점, 즉 확장성 향상과 배포 용이성입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은 둘 다 36%의 비율로 공동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5위 안에 든 장점 세 가지는 성능 개선, 보안 강화, 비용 절감입니다. 흥미롭게도 비용 절감은 클라우드 사용의 장점 중 5위에 그쳤지만 비용 최적화야말로 멀티클라우드 배포를 위한 Linux 배포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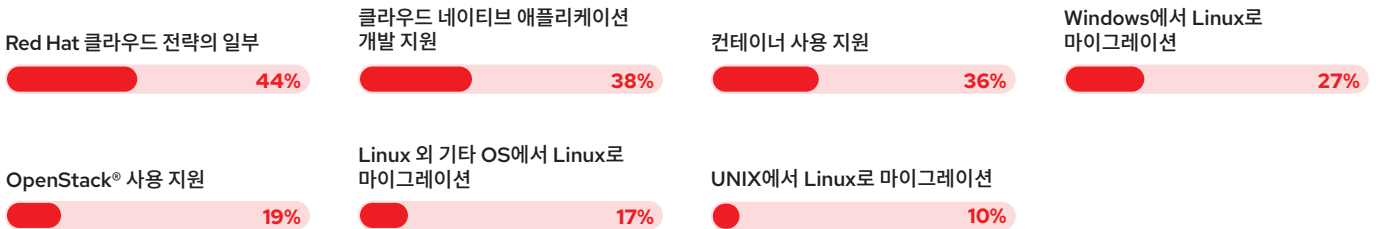
퍼블릭 클라우드에 Linux를 배포할 때 기대되는 주요 장점

확장성	36%
배포 용이성	36%
성능 개선	35%
보안 강화	34%
비용 절감	33%
가용성 및 신뢰성 향상	31%
출시 속도 향상	28%
개발자 만족도	27%
고객, 모바일/원격 직원 또는 다른 구성원에 대한 손쉬운 액세스	24%
새로운 개발 사례 활용(예: DevOps, 애자일, 마이크로서비스)	24%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른 OS보다 가벼운 Linux / 더 적은 리소스 필요	23%
컨테이너화 / 컨테이너 이동성	23%
특정 활용 사례 사용자 정의/해결 능력 향상	23%
클라우드 벤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22%
내부 직원에 대한 종속성 감소	22%
워크로드 구조 변경 촉진	21%
새로운 인프라 갱신 주기 방지	20%



조직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많이 취한 (또는 향후 2년 동안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는 기존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은 대부분 클라우드 인프라 전략이나 자체 애플리케이션 전략에 따른 전략적 선택입니다.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운영 체제 간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소수였습니다. 온프레미스의 Microsoft Windows에서 클라우드 환경의 Linux로 이전한 응답자가 그다음으로 많은 27%를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대다수의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이유



Red Hat의 파트너 에코시스템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객이 유연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된 워크로드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합니다.

[Red Hat 파트너 에코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Red Hat의 관점

조직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도입함에 따라 온프레미스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Red Hat은 간소화된 방식으로 기존 워크로드를 현대적인 인프라로 더 수월하게 대규모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직이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정 Red Hat Enterprise Linux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반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를 기반으로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함으로써 IT 조직은 더 원활하고 확장성 높은 현대화를 경험함과 동시에 잠재적 위험 및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2021 Linux 시장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동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접근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워크로드가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Linux는 많은 조직의 클라우드 전략에서 여전히 중심 역할을 하면서 조직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통 플랫폼을 사용하면 조직이 자체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인프라 전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d Hat은 조직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체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Linux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업체입니다. Red Hat은 조직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혁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 리소스, 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d Hat에 지금 문의하기](#)

2021 Linux 시장 조사: 방법론 및 기업 통계

모든 주요 산업과 모든 주요 지역에 걸친 아홉 개 국가의 IT 전문가 총 1,204명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Management Insight Technologies는 기술 경험 및 지식에 근거하여 참가자를 선택하였고, 모든 응답자는 Linux 경험이 있었습니다.

Management Insight Technologies는 일련의 전화 인터뷰와 웹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들은 조직이 인프라 내에서 Linux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Linux 배포판을 선택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하는지에 관해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2021년 2월과 3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지역	Linux OS 현황	산업
북미 42%	프로덕션 및 개발/테스트 단계에서 배포 74%	제조 및 광업 18%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25%	프로덕션만을 위한 배포 16%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16%
아시아 태평양 25%	개발/테스트만을 위한 배포 6%	금융 서비스 16%
중남미 8%	적극적인 파일럿 또는 평가 3%	소매, 도매, 유통 14%
	향후 도입 고려 1%	비즈니스 및 전문 서비스 9%
		보건 의료 8%
		공공 부문 7%
		통신, ISP, CSP 4%
		소비자 및 개인 서비스 3%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2%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광고 2%
		기타 2%

응답자 유형	Linux OS 현황
IT 의사 결정권자 (예: CTO, CIO, 책임자) 40%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대다수 차지(50-100%의 클라우드) 7%
IT 구현자(예: 아키텍트, IT 운영) 40%	혼용(25-49%의 클라우드) 64%
개발자 20%	데이터센터에서 대다수 차지 (0-24%의 클라우드) 29%

회사 규모
중소기업(500-999) 9%
상위 중견기업 (1,000-4,999) 41%
대기업(5,000-9,999) 28%
거대기업(10,000+) 22%

한국레드햇 홈페이지 <https://www.redhat.com/ko>

© 2022 Red Hat, Inc. Red Hat, Red Hat 로고, Ansible 및 OpenShift는 미국과 그 외 국가의 Red Hat, Inc. 또는 계열사의 상표이거나 등록 상표입니다. Linux®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Linus Torvalds의 등록 상표입니다.

"OpenStack 워드 마크 및 Square O Design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함께 또는 따로 쓰이는 OpenStack Found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이며, OpenStack Foundation의 허가에 사용됩니다."

f www.facebook.com/redhatkorea
 구매문의 080 708 0880
buy-kr@redhat.com